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시기별 변화에 대한 경락학적 해석

조용주 · 김진주

두리한의원

The Meridian Interpretation of Atopic Dermatitis Phases

Yong-ju Cho · Jin-ju Kim

The different growth steps of human show the different energetic phenomenon such as the strength of triple energizer, the scale of extra meridian, and the stability of 12 meridians. So we have to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phenomena on this point of view. Especially atopic dermatitis means the loss of adaptability under the lack of genuine energy. If you approach to this disease not with any perception of excess or deficiency of the human genuine energy but with simple symptom enumeration or partial diagnosis, it will be dangerous. So we must approach to this disease with more concrete and objective body-centered standard.

Thus when we cure and diagnose infants with this disease, we should focus on stabilizing the "Energy of Earth(土)" digestive ability, under the consideration of inducement to the enough "Byun-Jeung-Hu(變蒸候)" and the function of Triple Energizer. Through this process we can lead infants to the beginning equipment state(始全).

Until 7 years old, we should stabilize the Link Vessel(維脈) by clarifying interior and exterior classification of Nutritive Element and Defensive Energy to control the child's energy of metal(金), water(水), wood(木) and fire(火) in the basis of the energy of earth(土). And also we should stabilize the Heel Vessel(蹻脈) through the Water and Fire complement each other to control the movements and to control sleep and awakening. Through this process, we can lead children to the basal equipment state(本全).

After then, until adolescent phase, we should control 12 meridian and 8 extra meridian by leading vital function to be harmonized and prosperous on the basis of the meridian to reach the mature equipment state(既全). Adult atopic dermatitis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conciliation between meridian and internal organs by differentiating male from female.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Meridian

서론

교신저자: 조용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부과
외래교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두리한의원 원장
(Tel: 02-503-2256, E-mail: dooree99@hitel.net)

서구화된 문명발달을 통해 이 사회는 좀더 지능화, 정보화됨으로써 인간의 몸은 더욱 구속되어지고 있다. 동물학자 테즈먼드 모리스는 인간이 살고 있

는 이 사회의 도시는 간헐진 동물원과 같다고 주장하며 몸의 구속과 더불어 일어나는 인간사회의 병리현상을 설명하였다¹⁾. 화이트헤드는 충동에서 理性이 생겨난다²⁾고 하여 몸에서부터 연유된 반응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이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詩經》에서 朱子の 견해³⁾와 부합되고 있다. 비록 몸에서 비롯된 이성이지만 이성은 몸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몸이 일으키고 있는 반응 중 면역현상은 두뇌의 이성작용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알레르기와 같은 반응을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못한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allergy의 그리스말인 allos는 변형된 것이라는 뜻이며, atopy의 그리스말인 a-topos는 이상한 것, 생소한 것을 뜻하는 말인데 모두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우리의 이성은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두뇌를 중심으로 한 이성적인 기준으로 상상하여, 실제와는 달리 몸의 기능과 구조를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양의학은 현미경의 발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점에서부터 성장을 거듭했고 이 학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는 능력의 시각적 판단에 기준하고 있다. 이 시각은 바로

뇌의 진화와 같이 하게 되고 심지어 눈은 뇌의 일부라고도 하여진다⁴⁾. 인간은 시각 이외에도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기능을 통해서도 외부와 교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각기 역시 외부세계를 인지하는 바탕이 된다. 인간이 외부를 인식할 때 사용되는 감각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한 감각기만으로는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각에 의존된 서구의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윈의학⁵⁾이며 이 의학은 한의학적 사고방식에 접근하고 있어 상호교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을 진단하고 접근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 서구의 획일화된 시각적 정보와 뇌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뇌의 질환이 아닌 바로 인간 몸이 일으키고 있는 질환이며, 뇌가 볼 때 부당하고 너무 과민한 반응에 해당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를 통해 신체의 왜곡된 흐름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몸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우리 선현들이 바라보는 天人合一의 정신이요, 한의학이 추구하는 全一 개념의 모습일 것이다.

《素問 評熱病論》⁶⁾에서 ‘邪氣가 모여드는 곳은 그 氣가 반드시 虛하다’고 하였는데 이 논지를 해석할 때 邪氣가 모여드는 곳은 반드시 虛하지만 邪氣가 없으면서도 虛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선상의 正

1) 데즈먼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 서울:물병자리. 2003.
 2)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 이성의 기능(THE FUNCTION OF REASON). 서울:통나무. 1998.
 3) 성백효 역주. 詩經集傳. 서울:전통문화연구회. 2001:21.
 ‘사람이 태어나서 靜할 때에는 하늘의 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물에 감동되어 動하면 性의 欲(情欲)이 나온다. 이미 欲이 있으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이미 생각이 있으면 말이 없을 수 없고…(人生而靜은 天之性也요 感於物而動은 性之欲也니 夫既有欲矣則 則不能無思요 既有思矣則 則不能無言이요…)’라고 朱子께서 詩經序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詩를 짓게 되는 이유를 답하면서 인간의 本性은 본디 고요한데 事物에 느끼고 움직여지는 情欲 즉 충동에 의해 思惟와 言語와 詩가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권오길. 인체기행. 서울:지성사. 2001:13.
 ‘눈의 발생은 뇌의 일부분(전뇌)에서 시작되어 안포, 안구, 수정체, 각막의 순서로 만든다. 뇌는 전체적으로 단단한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으나 눈만이 바깥으로 뾰족이 튀어나와 있다. 분명히 눈은 유일하게 세상을 보는 뇌인 것이다.’
 5) R. 네스, G. 윌리엄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사이언스북스. 1999.
 이 책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질병을 해석하고자 하는 다윈의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서이다.
 6) 邪之所湊 其氣必虛

虛 상태에서 민감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다. 즉 正虛의 부족한 상태에서 邪氣가 침입한 경우와 邪氣가 침입하기 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을 크게 분류하면 正虛로 邪氣가 침입하여 virus나 bacteria, fungus 등의 기생체에 의해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와, 正虛하되 邪氣의 침입이 되기 전의 무방비한 상태와, 正虛하되 邪氣의 침입이 없으면서도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반응하며 민감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예비방어의 상태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세 번째의 상태가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며 아토피 질환의 발생원인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에서 대표적인 화학방어물질인 histamine은 외부의 침입을 받은 장소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그 부위의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 다른 여러 방어물질들이 빠른 속도로 그 곳에 도달하도록 한다⁷⁾. 또한 우리의 면역계 중 순식간에 반응하는 유일한 체계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체계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IgE 체계가 독소에 대한 예비적인 방어로서 진화했다고 프라팻은 제안했다. 프라팻에 따르면 22개의 역학연구 중 16개의 연구들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리며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조직들이 암에 강하다는 사실을 밝혔다⁸⁾. 이러한 연구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正虛의 상태에서 邪氣의 침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방어작용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면역방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면역의 예비방어적인 관점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볼 때 성장발달에 따른 시기별 변화와 그 적응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시기별 증상변화는 통상 유아기, 소아기, 성인기로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발생시기별 증상과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고, 각 발생부위의 변화에 따른 시기별 몸의 기능변화를 經絡

學的으로 고찰하여 성장시기별 經絡 발달 및 특히 奇經脈의 발달과 변화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인체 내의 正氣상태 변화를 비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三焦 및 奇經脈과 평가기준

소화기는 전체신체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이 물질이 유입되고 소화 흡수되어 自己化 시키는 곳이며, 폐는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gas 교환하는 곳으로 이 또한 외부 이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태아순환은 기체 및 여러 영양소, 노폐물 등을 교환할 때 태반의 막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출생과 동시에 이러한 기능이 심폐를 중심으로 하는 기체교환과 순환기능이 형성되며, 소장 등의 소화기를 통한 영양공급이 형성되어 이분화된다. 이 분화는 마치 積陽爲天, 積陰爲地の 분화로 大別되어 天氣를 교환하는 심폐와 地氣를 흡수 배출하는 소화기로 나뉘게 된다. 모체의 태반으로 起始된 天地之氣는 출생과 동시에 순환호흡기와 소화기로 天地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순환기, 호흡기의 바탕이 되는 奇經이 衝脈이요, 소화기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奇經이 任脈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醫學入門》⁹⁾에서 ‘督脈은 下極俞인 長強에서 起始하여 脊裏로 循行하고 風府혈로 上昇하여 뇌와 이마, 코를 지나 兌端과 顛交에 들어가니 陽脈의 바다로, 모두 모여 만나는 提綱의 要處며, 任脈은 中極의 바닥인 曲骨에서 起始하여 배로 上昇하

7) 로버트 A. 윌리스.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을유문화사. 2002:845.

8) Quarterly Review of biology 1991;66:23-62.

9) 督脈起自下極俞 並於脊裏上風府 過腦額鼻入銀交 爲陽脈海都綱要 任脈起於中極底 上腹循喉承漿裏 陰脈之海任所謂 衝脈出胞循脊中 從腹會咽絡口脣 女人成經爲血室 脈並少陰之腎經 與任督本於會陰 三脈並起而異行

여 인후와 承漿의 안으로 循行하니 陰脈의 바다로 이른바 임신과 관련되며, 衝脈은 胞에서 나와 脊中으로 循行하여 배를 따라가서 인후와 만나고 口脣에 連絡하며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血室이 되고 少陰腎經과 병행하여 任脈, 督脈과 함께 會陰에서 根本 하여 三脈이 함께 起始하되 다르게 循行한다.'고 했다.

여기서 督脈은 태아 자신의 근본이 되는 선천적 本源之氣가 형성된 奇經이요, 任脈과 衝脈은 출생과 동시에 태이순환기능이 이원화된 奇經脈이 된다. 그러므로 三脈으로 비롯된 經脈의 營衛之氣 또한 모두 胞를 중심으로 起始하고 終止하니 《入門》10)에서 '血室은 營氣, 衛氣가 停止하는 곳이며, 經脈이 流注하여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 《素問 骨空論》11)에서 '任脈은 中極의 아래에서 起始하여 陰毛 위로 상승하여 배 안을 循行하고 關元 위로 상행하여 인후에 다다르고 턱으로 올라와 얼굴을 循行하여 눈으로 들어가며, 衝脈은 氣街에서 起始하는데 少陰經과 병행하여 배꼽을 끼고 상행하고 흉중에 이르러서 흩어진다.'고 하였으니 任脈은 배 속을 循行하여 地氣의 바탕이 되고 衝脈은 胸中에서 빠져 宗氣의 源泉이 되어 天氣의 바탕이 된다. 衝任脈 二大奇經을 통해 天地 交泰¹²⁾가 이루어져 순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衝脈은 다시 地氣와 交會하고 任脈은 天氣와 交會하니 《素問 痿論》13)에서 '陽明은 五臟六腑의 바다로 宗筋을 滋潤하는 것을 주관하고 宗筋은 뼈를 단속함을 주관하여 機關을 부드럽게 하며 衝脈은 經脈의 바다로서 溪谷을 滲灌하

며, 陽明과 함께 宗筋에서 합하여지니 陰陽이 모두 宗筋에서 만나고 氣街에서 모여 陽明이 으뜸이 되고 모두 帶脈에 歸屬하여 督脈으로 連絡한다.'고 하였으니 衝脈이 地氣와 交會함을 보여주고 있고, 《靈樞 營氣》14)에서 十二經의 流注에 있어 肝經에서 肺經으로 流注하거나, 그 別支가 督脈에서 任脈을 거쳐 다시 肺中으로 流注하여 다시 太陰經으로 간다고 하였으니 任脈이 天氣와 交會함을 보이고 있다. 衝脈은 에너지인 氣의 本源이 되고¹⁵⁾, 任脈은 氣를 담고 滋潤하여 流行하는 血의 本源이 된다. 태생기와 유아기의 차이가 이렇게 분화되어 형성되므로 衝任脈의 성숙 및 기능의 활성화도에 맞추어 생리 병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衝任脈은 《素問 上古天眞論》16)에서 '여자 14세에 天癸가 이르고 任脈이 소동되어 太衝脈이 盛滿하니 월경이 때에 맞추어 일어나고 자식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점진적인 성장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衝脈은 三焦의 작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素問 骨空論》17)에서는 '衝脈은 氣街에서 起始한다.'고 했고, 《難經 31難》18)에서는 '三焦는 그 府가 氣街에 있고 어떤 板本에서는 衝이라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衝脈과 三焦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근거로 중요한 생리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즉 衝脈의 제 기능은 三焦와 연관되어 일어나고 三焦의 發源으로 衝脈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入門》19)에서 '아! 三焦의 妙用을 살핀 후에라야 臟腑의 다르고 같음

10) 血室乃營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處
11)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至咽喉 上頤循面入目 冲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12) 周易 泰卦에서 보이는 말로 '天地 交함이 泰하니...'라고 象傳에서 보이고 있다.
13) 陽明者 五臟六腑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冲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溪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合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14)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之竅, 究於畜門. 其支別者, 上頰, 循頰, 下項中, 循脊, 入骶,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15) 靈樞 動脈에서 衝脈者 經脈之海라고 했다.
16)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17) 冲脈者 起於氣街
18) 三焦其府在氣街 一本曰衝
19) 噫觀三焦妙用 而後知臟腑異而同同而異 分之則十二 合之則爲三焦 約而言之 三焦亦一焦也 焦者元也 一元之氣而已矣

과 같고 다름을 알 수 있으니 나누어지면 十二經脈이 되고, 합하여지면 三焦가 되며, 縮約하여 말하면 三焦 또한 一焦이니 焦라는 것은 元이요, 一元의 氣일 뿐이다.'라고 했으며, 《奇經八脈考》²⁰⁾에서 '原氣는 三焦의 別使이니 腎間動氣라는 것은 眞元一氣로 나누면 세 가지 길이 되어 사람의 생명과 十二經脈의 근본이 된다.'고 했으며 또한 '三焦는 命門의 用으로서 衝脈, 任脈, 督脈이 더불어 상통하므로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했다. 한편 《入門》²¹⁾에서 '三焦는 안개와 같고, 거품과 같으며, 하수도와 같으니 비록 이름이 있으나 형체가 없고, 氣를 주관하며, 음식을 주관하며, 대소변을 주관하여 비록 형체는 없으나 쓰임은 있다.'고 하여 그 생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三焦는 소화 배설 및 순환 생리 등에 이르기 까지 그 기능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성장발달과 동일하게 三焦의 기능 또한 성숙하여질 것이며 이 三焦의 기능 발달과 함께 衝任督 三脈도 성숙 발달할 것이다.

奇經八脈은 人身의 根幹이 되는 經脈으로 十二正經이 발육되는 동안에 바탕이 되는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奇經八脈考》²²⁾에서 '陽維脈은 一身의 絡을 주관하고, 陰維脈은 一身의 속을 주관하니 乾坤이라 말하고, 陽蹻脈은 一身의 좌우 陽을, 陰蹻脈은 一身의 좌우 陰을 주관하니 東西라 말하고, 督脈은 몸 뒤의 陽을, 衝任脈은 몸 앞의 陰을 주관하니 南北이라 말하고, 帶脈은 모든 經脈을 가로질러 묶어주니 六合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八脈을 알게 되면 十二經과 十五絡의 큰 뜻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難經 28難》²³⁾에서 '聖인이 도랑을 제설하신 것에 비유하면, 도랑이 넘치면 깊은 호수로 흘러들게 되므로 성인도 능히 제어할 수 없으니 사람의 經脈도 융성하면 八脈으로 들어가 돌아 두루 하지 못하게 되어 十二經脈 또한 능히 제어하지 못하므로 邪氣를 받아 축적되면 腫氣가 나고 熱이 나는 것을 돌침으로 사용합니다.'라고 하였고, 《奇經八脈考》²⁴⁾에서 '正經은 무릇 도랑에 비유되고, 奇經은 무릇 호수나 연못에 비유되니 正經의 脈이 隆盛하면 奇經으로 넘치게 된다고 秦越人이 비유하셨다.'고 하였으니 奇經脈은 經脈의 經水처럼 流注하는 것이 아니라 深湖나 바다처럼 橫流한 經水를 받아주는 조절역할을 하고 그 역으로 부족한 經水를 보충하기도 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靈樞 海論》²⁵⁾에서는 '衝脈은 十二經脈의 바다'라고 하였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入門에서 督脈은 陽脈의 바다이며, 任脈은 陰脈의 바다라고 하였다. 특히 衝脈은 十二經水의 流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源泉과 같은 바다로 인식한 것이다. 이 衝脈은 三焦의 點火로 氣를 推動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氣의 強弱多少의 다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인체의 氣作用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氣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단순히 이 推動의 기능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게 되며, 氣의 양상에 따른 조절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우주나 사물을 인식할 때 그 기준을 제시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周易은 이러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이다. 《周易 繫辭上》²⁶⁾에서 '天이 尊하고 地가

20) 原氣者 三焦之別使也 腎間動者 眞元一氣 分爲三路 人之生命十二經脈之根本也...三焦卽 命門之用 與衝任督脈相通者 故附著於此

21) 三焦如霧如瀉如瀆 雖有名而無形 主氣主食主便 雖無形而有用

22) 陽維主一身之表 陰維主一身之裏 以乾坤言也 陽蹻主一身左右之陽 陰蹻主一身左右之陰 以東西言也 督脈身後之陽 任衝主身前陰 以南北言也 帶脈橫屬諸脈 以六合言也 是故醫而知乎八脈 則十二經十五絡之大旨得矣

23) 比于聖人圖設溝渠 溝渠滿溢 流于深湖 故聖人不能拘通也 而人脈隆盛入於八脈而不環周 故十二經亦不能拘之 其受邪氣畜 則腫熱砭射之也

24) 蓋正經猶夫溝渠 奇經猶夫湖澤 正經之脈隆盛 則溢於奇經 故秦越人比之

25)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26) 天尊地卑하니 乾坤이 定矣오 卑高以陳하니 貴賤이 位矣오 動靜有常하니 剛柔斷矣오 方以類聚

卑하니 乾과 坤이 定하고 卑와 高가 陳하니 貴와 賤이 位하고 動함과 靜함이 常이 있으니 剛과 柔가 斷하고 方이 類로써 聚하고 物이 羣으로써 分하니 吉과 凶이 生하고 天에 있어 象이 成하고 地에 있어 形이 成하니 變과 化가 見하니라.' 했으니 天地 卑高로 定位하고 動靜으로 剛柔가 판단되며 方所와 事物의 類分으로 吉凶이 생기며, 形象으로 變化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테제에서 天地定位는 奇經脈에서 衝任督 三脈과 帶脈의 구조적 골격에 對比되고, 動靜으로 剛柔가 판단됨은 蹻脈의 寤寐와 緩急작용에 대비되고, 方物의 類分은 維脈의 營衛清濁작용에 대비되고, 形象變化는 十二經脈의 流注變化에 대비된다.

이러한 논점에서 살피는 이유는 선현들이 人身이나 사물 또는 자연을 하나의 우주로 보는 입장을 모든 醫書, 經書 등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인체를 파악하는 奇經八脈이라고 하는 經脈學說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선 근원적 에너지가 점차 확대되어 天地의 에너지를 兩分하듯 衝任脈이 형성되고, 督脈은 太初의 기운대로 온전히 先天的인 主宰者의 역할을 한다면 계속 외부에서 유입되는 飲食之精과 天氣 등과 같은 기운들은 과연 어떻게 조절하고 배치하며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 자연현상과 같이 動靜으로 因한 剛柔의 判斷과 方物에 의한 類分의 現象이 인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蹻脈과 維脈인 것이다. 維脈은 營衛를 나누는 버리가 되는 奇經으로 이는 陰陽清濁의 類分으로 형성된다. 이 현상을 《靈樞 陰陽清濁》 27)에서는 '무릇 陰經은 淸하고, 陽經은 濁하니...'라고 표현한데서 볼 수 있는데 이 淸濁의 분류는 다시 《靈樞 營衛生會》 28)에서 '사람은 곡식에

서 기운을 받아 곡식은 胃로 들어가고, 傳輸하여 肺로 주어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받으니 그 맑은 것은 營氣이요, 濁한 것은 衛氣이며, 營氣는 脈 가운데 있고, 衛氣는 脈의 밖에 있다...'라고 하여 營衛의 차이를 淸濁으로 나누고 있다. 《奇經八脈考》 29)에서는 '陽維脈은 모든 陽이 交會하는 데서 起始하니 足外踝에서 衛分으로 上行하고, 陰維脈은 모든 陰이 交會하는 데서 起始하니 足內踝에서 營分으로 上行하여 이른바 一身의 버리가 된다.'고 하였다. 인체는 循環流注를 통해 소화된 精氣를 類分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치 원심분리가 회전운동을 통해 淸氣가 內在하고 濁氣가 외부로 나누어지는 현상과 흡사하다.

우리 精氣의 淸濁 분류현상은 위치에 관한 方所와 물질의 종류에 따른 분류인 데 반해,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는 動靜의 기준으로 剛柔를 나눌 수 있다. 老子 《道德經》 30)에서 '사람의 生은 柔弱하고, 死는 堅強하며, 萬物 草木의 生은 柔脆하며, 그 死는 枯槁하니 堅強한 것은 死의 무리이요, 柔弱한 것은 生의 무리이다.'라고 하여 生動 기운은 柔弱하며 死靜의 기운은 堅強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難經 29難》 31)에서 '陰蹻脈이 병들면 陽脈은 느슨하고, 陰脈은 拘急하며, 陽蹻脈이 병들면 陰脈이 느슨하고 陽脈이 拘急해진다.'고 하여 陰陽剛柔의 病을 설명했고, 《靈樞 大惑論》 32)에서 '병들어 잠들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운 때문에 그러합니까?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지 못해 陽分에서 항상 머물면 陽氣가 盛滿하고 陽氣가 盛滿하면 陽蹻脈이 盛

外

- 29) 陽維起於諸陽之會 由外踝而上行於衛分 陰維起於諸陰之交 由內踝而上行於營分 所以爲一身之綱維也
- 30) 人之生也 柔弱 其死也 堅強 萬物草木之生也 柔脆 其死 枯槁 故堅強者 死之徒 柔弱者 生之徒
- 31) 陰蹻爲病 陽緩而陰急 陽蹻爲病 陰緩而陽急
- 32) 病而不得臥者, 何氣使然.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 常留於陽, 留於陽則陽氣滿, 陽氣滿則陽蹻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

코 物以羣分하니 吉凶이 生호오 在天成象코 在地成形하니 變化見矣라

27) 夫陰清陽濁...

28)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

滿해져 陰分으로 들어가지 못해 陰氣가 허약해져 눈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잠들지 못하고 動靜의 常道가 상실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 현상을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때, 維脈에서 기준이 되는 淸濁分類와 같은 지표와 비교해서 蹻脈에서는 剛柔의 常道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水火交濟의 생리 작용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해석이 가능해진다. 動靜과 剛柔의 작용은 水火의 交濟作用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水火가 既濟³³⁾하고 있으면 動의 상태가 되며 柔緩의 現象이 보이게 되고, 水火가 未濟³⁴⁾하고 있으면 靜의 상태가 되며 剛急의 현상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水火의 既濟와 未濟의 현상은 눈에서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寤寐와 運動을 모두 눈의 시각작용을 통해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靈樞 脈度》³⁵⁾에서는 '蹻脈은 少陰의 別인데 然骨의 뒤에서 起始하여 內踝의 위로 上行하고 곧게 넘적다리 안으로 上循하여 陰器로 들어가고 위로 가슴 속으로 上循해서 缺盆으로 들어가 위쪽 人迎의 앞으로 나오고 광대뼈로 들어가서 안쪽 눈초리에 配屬되어 太陽經, 陽蹻脈과 만나 上行하니 氣가 아울러 서로 돌아오면 눈을 적시고, 氣가 不榮하면 눈을 廢合하지 못한다.' 하였고, 《靈樞 寒熱病》³⁶⁾에서 '足太陽이 뒷목을 통해 腦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日本에 配屬되니 眼系라고 부른다.…腦로

들어가 陰蹻와 陽蹻로 나누어지고 陰陽이 相交하여 陽은 陰으로 들어가고 陰은 陽으로 나와 눈초리에서 교차하니 陽氣가 盛滿하면 눈을 부릅뜨고 陰氣가 盛滿하면 눈을 감게 된다.'고 하였다. 눈에서 陰蹻 陽蹻脈이 나누어져 陰陽이 교차하니 이것이 바로 水火交濟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눈은 빛을 통해 시간을 인지하는 통로이므로 寤寐와 運動을 주관하는 蹻脈의 교차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체 氣의 분화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기준에서 분류하여 維脈과 蹻脈의 奇經脈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인체 내로 흐르는 氣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衝任督 三脈이 인체의 바다와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면 三脈에서 起源한 기운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蹻脈과, 공간적 위치에 따른 維脈이라는 深湖를 통해 마찬가지로 항상성을 조절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蹻脈과 維脈은 氣라는 器局이 확대되고 커져나갈 수록 이를 판단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주로 인체가 어느 정도 성장 발육한 상태에서, 原氣가 확장되고 분화된 양상을 띠며 우리가 인지 할 수 있는 奇經일 것이다. 足少陰 腎經과 함께 發源하고 있는 奇經脈은 衝脈과 蹻脈과 維脈인데, 《靈樞 動脈》³⁷⁾에서 '衝脈은 十二經의 바다로 少陰의 大絡과 더불어 腎 아래에서 起始하여 氣街로 나와...'라고 했고, 《素問 骨空論》³⁸⁾에서 '衝脈은 氣街에서 起始하여 少陰經과 並行한다.'고 했고, 《靈樞 脈度》³⁹⁾에서 '蹻脈은 少陰의 別'이라 했으며, 《奇經八脈考》⁴⁰⁾에서 '陰維는 모든 陰이 交會하는 곳에서 起始하니 그 脈은 足少陰에서 發源한다.'고 하였다. 衝脈, 蹻脈, 維脈은 모두 腎經과 관련된 奇經인데 이 모든 奇經이 마치 足少陰

33) 周易 既濟卦에서 緣由한 말로 水火가 서로 사귀고 있으며 六爻가 모두 得正하여 바른 자리에 있다.

34) 周易 未濟卦에서 緣由한 말로 水火가 서로 사귀지 못하여 서로에게 쓰임이 불가능한 상태로 六爻가 모두 失位하였다.

35) 蹻脈者, 少陰之別, 起於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頰, 屬目內眥, 合於太陽. 陽蹻而上行, 氣并相遇, 則爲濡目, 氣不榮, 則目不合.

36) 其足太陽有通項入於腦者, 正屬日本, 名曰眼系,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眥眥,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

37)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38) 沖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39) 蹻脈者, 少陰之別,

40) 陰維起於諸陰之交 其脈發於足少陰

腎經의 別絡처럼 인식하고 있다. 足少陰腎經은 先後天의 精氣가 內藏되는 곳으로 十二正經 중 가장 뿌리와 같은 經脈인데 이를 《素問 陰陽離合論》⁴¹⁾에서 ‘앞을 廣明이라 하고, 뒤를 太衝이라 하는데 太衝의 자리를 少陰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十二經脈의 分化發育을 설명하면서 少陰은 곧 經脈의 꼭지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결국 이 논지는 十二正經을 기준해서 볼 때 衝脈, 蹻脈, 維脈은 모두 腎經과 같은 類이면서 다르게 나타나 보이는 화학의 이성질체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태생적 기원은 衝脈이요,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十二正經의 腎脈이요, 확장된 개념에서의 시간적 관점에서는 蹻脈이요, 역시 확장된 개념에서 공간적 관점에서는 維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腎經과 衝脈, 蹻脈, 維脈은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성질체라고 표현한 것이다. 蹻脈과 維脈은 시간, 공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발육상태를 보인 개체에 적용하기 편리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볼 때 인간의 성장발달은 奇經脈의 양적 질적 증가와 十二正經 흐름의 완성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奇經脈이라고 하는 바다가 얼마나 깊고 크냐에 따라서 十二正經 흐름의 규율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奇經脈은 氣라고 하는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구 속의 바다와 같이 항상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奇經脈의 규모에 따라서 인간의 力量이 분명히 한계 지워지며 특히 성장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단계별 신체징후는 이와 밀접한 연관을 두어 변화하게 된다. 치아발육의 순서, 운동발달과정, 편도발육, 이관기능, 호흡수, 심박수, 피부의 피지분비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逆으로 奇經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생리 병리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奇經脈의 변화는 三焦작용에 起因하게 되므로 三焦기능의 성숙도는 奇經脈의 규모를 가늠하는 지

표가 되고 奇經脈의 규모는 十二正經의 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시기별 아토피 피부염의 양상변화를 三焦라는 불의 세기 및 奇經脈의 규모와 十二正經의 안정성이라는 3가지 과정을 비교평가하면서 생리병리 변화를 해석하도록 하겠다.

이로써 시기별 奇經脈의 변화를 三焦의 성숙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으며, 三焦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기별 생리병리 상태를 正氣의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三焦의 강약에 따른 奇經脈의 변화로서 성장발달변화를 추정한다는 것은 바로 몸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체 생리병리를 관찰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2. 시기별 아토피 피부염

(1)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

출생시 신생아의 평균 호흡수는 42회 정도이며 심박동수는 140회 정도로 성인의 약 2배 정도이고, 위의 용적은 50cc 정도로 성인의 1500cc의 1/30정도가 되며 모유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호흡, 심박수가 성인의 2배 정도 빠르다는 것은 三焦의 능력이 아주 미약하므로 전체 순환과 흐름을 빠르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체적에 비해 형성된 원천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풀무질하듯이 많은 외부 에너지를 흡입해 체적에 맞게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시키려는 보상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현상은 奇經脈의 크기가 너무나 작고 일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소화능력을 제외한 운동능력이나 감각능력과 같은 기능들은 더욱 천천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유아 체중의 2배가 되는 시기가 약 4개월에서 보이며, 1년 정도이면 3배 정도까지 증가하게 된다. 체중의 2배 정도 되는 시기는 곧 三焦의 기능적 역할이 태내에서 모체에 의존한 것이 독립되는 시기

41)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면역학적으로 이 시기부터 모체의 태반을 통해 유입된 면역기능이 거의 소실되고 유아 자체 내의 독립적인 면역기능을 형성하는 시기가 된다⁴²⁾. 또한 피부에서 피지선은 출생시 잘 발달되어 있다가 곧 쇠퇴하여 작은 크기로 존재하다가 8세 내지 10세경에 다시 발달하게 되는데 쇠퇴의 시기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아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감별진단은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대개 생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생후 1개월 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로 면역기능의 모체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에 과민반응이 유발되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전의 유아는 성장과 발육이 특히 왕성하고 영양에 대한 장애도 생기기 쉬우며 사망률도 높은 시기이다. 그 이후에는 보행 언어 등의 발달이 왕성하게 된다. 백일 즈음 되는 시기를 變蒸⁴³⁾의 과정에서 보면 三變과 二蒸四變의 기간으로 心, 小腸을 變蒸하는 기간⁴⁴⁾이다. 앞에서 斷臍 후에 순환의 중심인 心肺와 소화영양의 중심인 소화기 특히 소장을 위주로 이분화되어 마치 天地가 분화하듯 한다고

했다. 이 心, 小腸의 기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奇經의 衝任脈이 유아 자신의 임의 방식으로 독립적인 운행이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이때 운동기능은 목을 가누며 웅알이도 하게 된다. 이러한 變蒸候의 발생원인은 바로 三焦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三焦의 원동력으로 變蒸을 통해 臟腑經絡의 器局基盤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入門》 45)에서 '320일이 되면 五蒸十變을 하여 戊土를 生成하여 足陽明胃經에 屬하게 되고 ...十變五蒸이라는 것은 天地의 數로 나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후에 意志가 생겨나고 말을 하게 되며 喜怒의 감정을 알게 되므로 始全이라고 한다. 十變 후에 64일이 되어 一大蒸을 하니 모두 384일 되면 手足의 經脈이 자라게 되어 손이 血을 받아 물건을 쥌 수 있게 되고, 발은 血을 받아 서서 걸을 수 있으며, 다시 64일에 二大蒸하니 모두 440일이며 말과 意志가 이전과 달라지고, 다시 64일에 三大蒸하면 모두 512일에 變蒸을 마치게 되어 말을 배우고 기대어서며 붙잡고 걸으며 스스로 먹을 수 있어 血脈筋骨이 튼실해진다.'고 했다.

영아기 동안에는 주로 소화기를 중심으로 한 체적발달이 주가 되므로 土氣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운동, 지능 등의 발달이 동반된, 土氣를 바탕으로 한 金水木火의 氣가 형성되는 것이다. 생후 백일을 전후해서 모유의 분비량도 줄고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며 면역학적으로도 모체로부터 독립된 면역체계를 형성하여 진정한 독립된 개체가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둘을 전후해서 變蒸을 마치게 되어

42) Ivan Roitt. ESSENTIAL IMMUNOLOGY. London:Blackwell science.1997:287.

'In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while the baby's own lymphoid system is slowly getting under way is afforded by maternally derived antibodies acquired by placental transfer and by intestinal absorption of colostrum immunoglobulins.'

43) 入門에서 '變은 五臟을 變生하는 것이요, 蒸은 六腑를 蒸養하는 것이므로 變하면 氣를 오르게 하고 蒸하면 몸을 熱하게 하는 것으로 小兒가 처음 나서 형체가 비록 갖추어 졌으나 臟腑氣血은 아직 갖추지 못하여 精神志意魂魄이 온전하게 나지 못하여 三十二일에 一變하고 六十四일에 一蒸하며...'라고 보인다.

44) 變蒸은 水火木金土의 順으로 94일에 3變하여 丁火 手少陰心을 낳고, 128일에 2蒸4變하여 丙火 手太陽小腸을 낳는다.

45) 至三百二十日 五蒸十變 生戊土 屬足陽明胃...十變五蒸者 天地之數 以生成之 然後生意志 能言語知喜怒 故云始全也 十變後六十四日爲一大蒸 計三百八十四日 長其經脈手足 故手受血而能持物 足受血而能行立 又六十四日爲二大蒸 計四百四十八日 則言語志意有異於前 又六十四日爲三大蒸 計五百一十二日 變蒸既畢 學語倚立 扶步能食 血脈筋骨皆牢

안정적인 성장발육을 갖추게 되니 소화의 모든 역량이 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토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入門에서 始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變蒸候가 끝나는 두 돌 이내에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인 양 볼의 소양성 홍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始皤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발육과정인 變蒸候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족한 징후로서 正虛의 상태이다. 조46)는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을 위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變蒸候와 관련되며 특히 足陽明胃經은 가장 늦게 變蒸하게 되므로 그 기능이 불완전하여, 나타나는 부위가 주로 足陽明胃經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 볼을 위주로 형성된다고 하였고, 이 등47)은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위장관 성숙이 불완전하여 식품 알레르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는 土氣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바탕이 되는 三焦의 기능이 취약하여 그로 인한 奇經脈의 器局이 정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正氣가 부족하여 외부 세계와의 부적응을 초래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

2세부터 사춘기까지 보이는 소아기 습진으로 여기서는 2세부터 7-8세의 단계와 사춘기 전까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素問 上古天真論》에서 7, 8세 단위로 나타나는 생리변화를 간략하게 특징져 설명하고 있다. 이 편의 논지는 우리 몸에서 늘 보이는 생리변화가 아니라 그 시기가 되어야지 가능한 시기별 특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을 토대로 三焦의 세기와 奇經脈의 器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2세에서 7·8세까지 생리변화

7·8세가 되면 腎氣가 盛해져서 유치에서 영구치인 간니로 바뀌게 되는데 제1대구치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까지 내절치, 외절치, 제1소구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순으로 형성되며 그 후 30세 사이 동안 제3대구치가 만들어진다. 편도선의 경우 신생아는 구개궁내에 숨어 있지만 그 뒤 점차 증대하여 1년의 마지막에는 대대수가 구개궁외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점차 증대하여 10-12세경에는 최대에 달하여 16-17세에 다시 구개궁내로 숨는다. 칠세를 기준으로 하여 간니가 생기가 시작하고 심박수는 평균 90회, 호흡수는 24회 정도로 보이는데 심박수와 호흡수는 성인의 1.3배 정도 빠른 상태에 있다. 호흡수와 심박수가 빠르다는 것은 성인과 같은 생리 상태를 안정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기능과 에너지의 양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빠르게 호흡하고 박동한다고 볼 수 있다. 안구 발육의 경우 양안 망막에 결상된 각각의 상을 동시에 하나로 느끼고 입체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6세까지 발달하고, 안축장의 길이는 약 14세에 이르면 성인의 크기에 도달한다. 이관의 경우 유아는 협부형성이 불완전하고 넓고 짧으며 수평위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관이 길어지고 좁아지는 해부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부비동의 경우 사춘기 즈음에 거의 다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7세를 전후해서 안구의 융합기능과 이관의 기능이 안정화되어 중이염 발생이 줄게 되고, 입체시를 가능하게 하여 이 시기가 바로 생리 기능상의 기본적인 안정화를 가져오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를 《素問 上古天真論》48)에서는 ‘여자 칠세면 腎氣가 盛滿하여 이빨을 갈고 머리카락이 길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三焦의 세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三焦의 기능, 즉 생명 불(命門火)의 세기는 衝任脈이 胸上部에 까지 다다를 수 있을 정도가 되

46) 조용주.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부위에 대한 고찰. 동의학회지. 1998;2(1):174-184

47) 이길영, 김해정. 유아기 아토피피부염에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의 역할에 대한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33-41

48)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어서 이 기운을 통해 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관 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三焦 불의 세기가 더욱 강해져서 衝任脈과 같은 奇經脈의 器局이 한층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지만 머리끝까지 여유 있게 氣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靈樞 邪客》⁴⁹⁾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서, 사람의 머리가 둥글고 발이 모난 것은 이에 상응하는 것이며...땅에 높은 산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어깨와 무릎이 있고, 땅에 깊은 계곡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겨드랑이와 오금이 있고...'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어깨와 무릎의 부위는 높은 산과 같고, 겨드랑이와 오금은 깊은 계곡과 같아서 人身의 氣가 여유롭거나 세지 못하면 肩膝腋膕의 부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전주부, 슬와부 등의 굴측에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증상을 해석할 때 邪客의 논지를 보면 正氣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經脈의 氣가 부족하여 肩膝腋膕의 범위를 넘어 정상적인 流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주부, 슬와부 등의 굴측부에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屈伸部는 많은 氣가 소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타부위에 비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이다.

상기도 감염의 경우 생후 2-3년 동안이 가장 흔하고, 2-5년 된 소아는 연 6-8회, 5-8년의 연령 군에서는 연 3-8회, 9-13년의 연령 군에서는 연 2회 정도의 감기를 앓게 된다⁵⁰⁾. 감기의 연평균 횟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그 만큼 외부와의 적응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데 7세를 기준으로 하면 영유아기보다 훨씬 감기의 빈도수가 감소하고 다시 사춘기를 기준으로 성인과 동일한 빈도로로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三焦의 작용이 소화

기와 같은 영양 배설의 土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기능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감기의 중요한 병리기전은 營衛로부터 시작하는데 《仲景全書》⁵¹⁾에서 '風則傷衛, 寒則傷營'이라 하여 외감병리 기전을 營衛로써 설명하고 있다. 營衛를 주관하는 奇經은 維脈인데, 감기발병의 빈도수와 비교할 때 7세의 경우 아직은 維脈이 불완전한 상태로써 淸濁의 구분이 강력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소화흡수와 배설의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형성된 諸氣를 다시 분류하여 배치하는 능력이 기본적인 상태에 있으나 강력하고 왕성한 상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외부 환경의 적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급작스런 환경변화나,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운동능력은 奇經 중에서 蹻脈발달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7세 시기의 운동발달 정도는 성인에 비해 정교하고 강력한 운동력을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균형적이고 안정감 있는 운동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蹻脈 역시 기능적으로는 비교적 안정화 되었으나 그 규모면에서 성인에 비해 아직 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수면시간의 경우 생후 수개월까지는 하루 18-20시간을 자고, 1세가 되면 14-16시간, 2세가 되면 12-14시간, 5세가 되면 10-12시간, 10세가 되면 10시간을 자게 되는데 역시 이를 바탕으로 蹻脈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현재의 지구는 지축이 丑末方位로 경사져 있어 三天兩地運動⁵²⁾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49) 天圓地方, 人頭圓足方, 以應之...地有高山, 人有肩膝. 地有深谷, 人有腋膕.

50) 의학교육연수원편. 가정의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483-484.

5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대성문화사. 1988:118,139.

52)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행림출판. 1985:302.

'陽氣가 丑寅卯辰巳午未의 7方位에서 작용하고, 陰氣는 辛酉戌亥子의 5方位에서 작용하게 되어 陽氣는 3/5만큼 받게 되고 陰氣는 2/5만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天兩地運動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표현하여 十二地支로 계산하면, 24시간의 7/12인 14시간은 陽氣가 主하고, 24시간의 5/12인 10시간을 陰氣가 主하게 된다. 7세의 수면시간을 약 10시간으로 보면 三天兩地運動으로 생긴 陰氣의 양과 부합된 시간동안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陰陽의 量比만큼 寤寐가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체로서 자연계에서 보이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에 위배하여 거슬러 감소하려는 입장⁵³⁾에 있다. 그러므로 7세 정도의 인간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本⁵⁴⁾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7세 이후부터는 자연계에서 받은 기본을 바탕으로 일층 향상되고 강인해진 상태로 진입하게 되므로 사회성이 강한 인간으로 변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7세 이르게 되면 蹻脈, 維脈 뿐만 아니라 奇經八脈의 규모가 자연이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므로 기능상 안정화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三焦의 세기는 그 力量이 本全의 수준으로 성인 기준의 약 70%정도 수준이 되고, 衝任脈 또한 上胸部에 까지 자유롭게 미치는 정도이며, 維脈과 蹻脈이 기능적으로 안정화 되었으나 외부환경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이 식이요인보다는 외부환경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⁵⁵⁾은 蹻脈과 維脈의 器局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② 7·8세에서 사춘기까지 생리변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빈도는 2세경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5세 이후부터는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아 지게 된다⁵⁶⁾. 7세까지가 생리의 기본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후 사춘기까지는 구조적 완성과 규모의 확대를 통한 성장과정이다.

《周易 賁卦》⁵⁷⁾에서 ‘程子 이르되 物은 飾이 있는 후에 能히 亨한지라 고로 이르되 無本이면 不立 이요 無文이면 不行이라 하니 實이 있고 飾을 加한 즉 可히 亨한 것이다.’라 하였으니 文⁵⁸⁾ 즉 꾸밈은 立本에서 나아가 사회집단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확대된 자아를 만들어준다. 사춘기 때의 奇經의 규모는 성인의 크기에 도달하게 되고, 本全의 상태를 넘어 文飾을 하여 몸의 상태를 더욱 풍부하고 왕성하게 하는 단계가 되어 생식능력이 왕성해진다. 그러므로 《素問 上古天真論》⁵⁹⁾에서 ‘여자 14세에 天癸가 이르고 任脈이 疏通되어 太衝脈이 盛滿하니 월경이 때에 맞추어 일어나고 자식이 있다. ...장부 16세에 腎氣가 盛滿하여 天癸가 이르고 精氣가 넘쳐흘러 陰陽이 조화로워 능히 자식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끊어졌던 任脈과 督脈의 순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것을 의미

53) 말론 호아글랜드, 버트 도드슨. 생명의 파노라마. 서울:사이언스북스. 2001:40-43.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분산되고, 무질서해지며, 안정화되고, 평형해지는데 반해 생명체는 조직화, 질서화, 불안정한 상태, 비평형으로 바꾸고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54) 入門에서 보이는 始全에 對比하여 기본적인 기능이 안정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이자를 붙이지 않은 본래의 액수라는 뜻의 本錢과 발음이 같고 그 뉘앙스가 비슷하여 저자가 정한 命名임

55) 대한피부과학회간행위원회편저. 피부과학. 서울:여문각. 1986:84.

‘일반적으로 생후1년 이내에 시작되는 습진은 음식물이 원인일 수 있고 2년 이후에 처음 발

진이 시작되었다면 양모, 개털, 고양이털, 새털 등 음식물 이외의 외부요인이 더 중요한 인자일 수 있다.’

56) 이현정, 변대규, 김진우. 한국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역학조사에 관한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6):898-907.

57) 金吞虛 譯著. 周易禪解. 서울:教林. 1985:465.

58) 文飾의 하나인 생물 간의 의사소통은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체보존과 생식증가를 고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시각적 의사소통의 예로 만드릴 원숭이의 독특한 얼굴무늬와 같이 성적인 표현으로 영구적 무늬를 갖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9) 女子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丈夫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하는데, 督脈은 선천적인 자아의 주재자로서 성장과 함께 자연스레 커나지만 任脈은 후천적으로 배양하여 三焦로 그 기능을 차츰 차츰 부풀어 올려 사춘기가 되어서 督脈과 소통하게 되므로 사춘기에 도달하는 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任督脈의 소통은 태아기 때의 상태와 흡사하나 그 규모나 기능의 질적인 면에서는 판이한데 태아는 任督脈 循環時 臍帶를 통해 모체를 경유하여 모체의 任督脈의 힘으로 기생하는 상태이나 사춘기 때에는 본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任督脈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經脈流注에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十二經脈을 제외한 任督脈의 순환이 미약하거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靈樞 營氣》⁶⁰⁾에서 ‘氣가 太陰으로부터 手陽明으로 流注하고…肝에서 肺로 上行 流注하며…그 支別하는 것이 위로 이마로 가서 머리 꼭대기로 循行하여 뒷목으로 내려와 척추를 循行하여 尾骨로 내려오니 이것이 督脈이며, 陰器로 別絡하여 위로 陰毛를 지나 배꼽으로 들어가서 위로 배안을 循行하여 缺盆으로 들어가 아래로 肺中으로 流注하여 다시 太陰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營氣가 循行하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니 本脈이 아닌 支別의 脈氣가 任督脈으로 循環함을 논술하고 있다. 이는 소아기 때 보이지 않던 支別이 사춘기가 되어서 형성되어 흐르게 됨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上古 天真論의 논지인, 任脈이 소통되는 것이며, 天癸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독맥과 만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춘기 전의 심박수, 호흡수가 빠른 것과 經脈流注 현상이 이런 의미에서 서로 일치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靈樞 脈度》⁶¹⁾에서 督

脈, 任脈, 蹻脈의 3가지 奇經이 十二正經과 합해져서 모두 16丈 2尺이 되어 氣의 大經隧가 된다고 했는데, 이 3가지 奇經의 발육이 덜 된 소아의 경우 흐름이 생략되므로 15經脈 중에서 발육이 덜 된 3經脈이 부족해서 성인의 3/15만큼 脈도가 줄어 經脈流注 속도가 빠르게 되므로 7세경의 평균호흡수와 심박수가 성인의 1.3배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춘기 전의 經脈 흐름은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부위가 성인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전주부, 슬와부 등의 굴측부와 엉덩이, 안검, 손목, 발목에 나타나고, 귀주위의 균열, 구순염 등 任督脈이 미치지 않는 부위 중에서 經氣의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 민감한 부위인 八虛⁶²⁾에 集中되는 현상이 보인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八虛뿐만 아니라 任督脈이 교차하는 목과 얼굴에서 유아기 양상과는 다르게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臟腑를 중심으로 流注하는 十二正經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규율과 안정성 등과 같은 虛實을 분석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靈樞 經脈》의 是動病과 所生病⁶³⁾의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 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寸, 合三丈九尺.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

62) 조용주.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부위에 대한 고찰. 동의학회지. 1998;2(1):178

이 논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八虛에 관한 논술을 상세히 보이고 있다.

63) 주일모.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법민문화사. 2000:67-72

是動病, 所生病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나 이 책에서는 마왕퇴 의서에 근거하여 ‘시동병은 是主動疾則病의 줄임말로 즉 맥은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박동이 비정상적이면 맥에 병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시동병이 어떤 경맥의 동맥 박동이 비정상적일 때의 병증이라면 이론상 소생병은 비록 어떤 경맥의 동맥박동이 정상적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병증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60) 氣從太陰出注手陽明…從肝上注肺…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髓,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61) 手之六陽,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 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 八尺, 六

(3). 성인기 아토피 피부염

2세 즈음이 되면 始全의 상태가 되고, 7세경에는 本全의 상태가 된 뒤 사춘기를 지난 성인의 경우는 文飾을 완전히 마친 既全⁶⁴⁾의 상태가 된다. 三焦의 세기는 최고의 상태가 되고 奇經八脈이 완전하게 그 규모를 갖추게 되어 十二正經 또한 안정되고 완전한 流注를 하게 되므로 《素問 上古天真論》⁶⁵⁾에서는 ‘여자 21세에 腎氣가 平均하게 되어 眞牙가 생기고 성장이 最高潮에 도달하게 되고, …남자 24세에 腎氣가 平均하게 되어 筋骨이 勁強하며 眞牙가 생기고 성장이 最高潮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다. 성인의 既全 상태에서는 사춘기 전과 달리 任督脈이 완전하게 소통하게 되어서 남녀의 구분이 확연해지고 이 任督脈을 중심으로 經脈流注가 일어나게 되므로 치료방법이나 병증의 진단법이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八虛와 얼굴 목 등에 나타나며 태선화와 같은 만성병변이 많고 手部습진이 흔하게 보인다. 특히 사춘기 이후 여성의 유두습진이 아토피 피부염의 특이한 증상인데 유아기 때도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任督脈이 소통되면서 남녀별로 각기 다른 생리변화를 보여 내부적으로는 氣의 本源인 下丹田의 양상이 외부적으로 얼굴과 손, 발, 젖꼭지 등과 같이 드러난 곳으로 반영되어지는데 이것은 文飾이 극도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별이 확연히 구분되어진 성인기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남녀별 분석방법에 차이를 두어 접근하여야 한다.

남자는 督脈을 主奇經으로 하여 任脈이 소통되고

64) 既는 겹질이나 겨 따위를 제거한 곡물인 稷을 먹어서 배가 불러 목이 맨다는 뜻으로 한도에 차도록 먹었다는 데서 이미란 뜻을 나타내므로, 모든 기능과 구조가 완성되었고 文飾조차 다 된 상태라는 의미로 既全이라고 저자가 명명했음
65) 女子三七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丈夫三八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眞牙生而長極.

있고, 여자는 任脈을 主奇經으로 하여 督脈과 소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入門》⁶⁶⁾에서 ‘첩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말인데 陽脈이 모두 모여 남자의 주가 되고, 任脈은 낡고 기르는 원천이니 여자의 주가 된다.’고 했다. 남자는 陽氣가 모여야 督脈이 주재할 수 있는데 陽氣는 흩어지기 쉬워 병이 나게 되며, 여자는 陰血을 주로 하는 任脈이 주가 되므로 흐르지 않고 고이기 쉬워 병이 들게 된다. 이 현상을 《東醫寶鑑》⁶⁷⁾에서는 ‘남자는 陽에 屬하니 氣를 얻어 흩어지기 쉬우며, 여자는 陰에 屬하니 氣를 만나 흔히 鬱滯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氣病이 항상 적고, 여인의 氣病은 항상 많게 되니 治法에서 이르기를 여인은 마땅히 그 血을 조절하되 그 氣를 소모하게 하며, 남자는 마땅히 그 氣를 조절하되 血을 기르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녀의 구분을 통해 奇經脈과 十二正經의 조화를 피하는 것이 이 시기의 아토피 피부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사람은 성장기별로 나타나는 三焦의 세기와 奇經脈의 규모, 十二正經의 안정성 등과 같은 여러 氣의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생리병리 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아토피 질환은 正氣가 부족한 正虛에서 보이는 예비방어 상태로서 적응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正氣의 과부족 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증상들의 나열이나 한쪽에 편향된 진단을 통해 아토피 질환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몸을 중심으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 질환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66) 督之爲言都也 陽脈都會 男子之主…任脈生養之源 女子之主
67) 男子屬陽 得氣易散 女人屬陰 遇氣多鬱 是以男子之氣病常少 女人之氣病常多 故治法曰女人宜調其血以耗其氣 男子宜調其氣以養血

이에 아토피 피부염의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성장기별 經脈 발달과 三焦의 변화를 토대로, 유아기에는 變蒸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되 三焦의 기능을 살피 소화능력인 土氣를 안정화하여 始초의 상태가 되도록 주력하여야 한다. 소아기 중 7세까지는 土氣를 바탕으로 한 金水木火의 기운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營氣, 衛氣의 表裏 內外的 類分을 명확히 하여 維脈을 안정화시키고, 水火交濟의 현상인 動靜 寤寐의 규율과 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水火調節을 통해 蹻脈을 안정되게 하여 本초의 상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이후 사춘기까지는 基本이 된 經脈을 바탕으로 文飾을 왕성하고 조화롭게 이루도록 유도하여 十二正經과 奇經八脈이 완전한 既초의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고,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은 남녀의 구분을 통한 經脈과 臟腑의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오길. 인체기행. 서울: 지성사. 2001:13.
2. 金吞虛 역저. 주역선해. 서울: 교림. 1985:465.
3. 金赫濟 교역. 원본집주 시경. 서울: 명문당. 1988:1.
4. 金赫濟교역. 원본집주주역. 서울: 명문당. 1987:79, 132-136, 343-353.
5. 대한피부과학회 간행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1986:84.
6.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2001:161-166,176.
7. 백만기. 최신이비인후과학. 서울: 일조각. 1995:13.
8. 성백효. 현토완역 시경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21.
9. 윤동호, 이상욱, 최억. 안과학. 서울: 일조각. 1995: 207, 228.
10. 의학교육연수원편.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483-484.
11. 정규만. 동의소아과학. 서울: 행림출판. 1990:43-54, 373.
12. 조용주.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부위에 대한 고찰. 동의학회지. 1998;2(1):178.
13. 이길영, 김혜정. 유아기 아토피피부염에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의 역할에 대한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33-41.
14. 이현정, 변대규, 김진우. 한국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역학조사에 관한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6):898-907.
15.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85: 302.
16.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91:92.
17. 홍원식 校合編纂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11, 29, 124, 166, 209.
18. 홍원식 校合編纂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79-85, 113, 115, 119, 130, 194, 267, 298.
19. 王弼 注. 道德經. 臺北:新興書局. 중화53:87.
20. 李挺 醫學入門, 서울: 한성사. 1984:78, 92-93, 431.
21. 李時珍. 奇經八脈考. 서울: 대성문화사. 1995:774 (551-567).
22.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8:118,139.
23. 주일모.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민문화사. 2000:67-72.
24. 秦越人. 難經集注. 臺北:臺灣中華書局. 중화74:177.
25. 데즈먼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 서울: 물병자리. 2003.
26. 로버트 A 윌리스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845.
27. 말론 호아글랜드, 버트 도드슨. 생명의 파노라마.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40-43.
28.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 이성 기능(THE FUNCTION OF REASON). 서울: 통나무. 1998.
29. R. 네스, G. 윌리엄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9.
30. Ivan Roitt. ESSENTIAL IMMUNOLOGY. London: Blackwell science. 1997:287.